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길 위한 교통관리” 강조 서울역 특별교통대책 현장 방문·안전매뉴얼 준수사전점검 철저 등 관리 강화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(금) 서울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기간 ‘철도 특별교통대책’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철도공사와 (주)에스알 임·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“고향 가는 길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현장에서부터 안전매뉴얼 등 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, 각종 장애 발생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올해 추석 연휴에는 1일 평균 22만 명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열차 운행계획,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(주)에스알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.
 - 연휴기간 철도역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므로 청결한 환경 유지에 힘쓰고,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근무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긴급 구난체계를 촘촘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,
 -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(주)에스알은 다양한 철도 서비스 제공, 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 국민편의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연휴기간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·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없는 여성 안심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도록 당부하였다.

- 한편,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21일(금) 용산역을 방문하여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, 대규모 열차 증편 운행에 따라 종사자 피로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.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1일(금) 청주공항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였다.
 - 청주공항에서는 운항·정비 분야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·해소하고, 지연이나 결항 발생 시 후속준비를 철저히 이행하여 항공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고,
 - 교통센터에서는 평소보다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교통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교통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,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긴급 구난체계를 꼼꼼히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개 요

- 방문일시 : '18.9.21(금)
- 방문목적 : 특별수송대책 준비상황 점검, 관계자 격려 등

□ 방문일정

- 장관님 : 서울역

시간계획	소요	내 용	비 고
15:40~16:20	40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서울역 점검 * 철도공사 특별교통대책 청취, 고객 환송 및 현장점검, 직원 격려 등 	

- 1차관님 : 용산역

시간계획	소요	내 용	비 고
16:00~16:30	30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용산역 점검 	

- 2차관님 : 남이분기점 ⇒ 청주공항 ⇒ 도로공사 교통센터

시간계획	소요	내 용	비 고
14:00~14:30	30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동(청사 → 남이분기점) 	
14:30~14:40	10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남이분기점 교통상황 점검 	
14:40~14:50	10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동(남이분기점 → 청주공항) 	
14:50~15:20	30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주공항 특별교통대책 점검 	
15:20~16:50	90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동(청주공항 → 교통센터) 	
16:50~17:20	30'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센터 특별교통대책 점검 	